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순례길

김영문 브루노 신부

가

가

가

가

가

가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0/02/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36,650

현재 기부 금액 - \$ 36,130

현재 참가 인원 - 86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 교회의 ‘현대적 적응’을 모토로 끊임없는 쇄신과 일치를 강조한

### 교황 요한 23세(1881~1963)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평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23세께서는 평화의 필수 조건들을 인간 정신의 네 가지 요구인 진리, 정의, 사랑, 자유로 규정하셨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003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중에서).

오늘날 평화는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면서도 가장 멀고 먼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 곁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다시 인간에게 회복시켜 준 선물이기도 하다. 7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교황으로 선출된 요한 23세는 자신의 회칙 『지상의 평화』를 통해서 이른바 “평화의 네 기둥”을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모든 민족들의 평화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는 인간의 현실을 볼 때,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 인류의 평화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평화와 결코 법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의 구조나 장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수한 평화의 행위로 축적된 지혜와 경험에서 온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평화의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요한 23세 교황의 가르침은 평화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염원인 오늘날 더욱더 생생한 생명력을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요한 23세 교황의 본명은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Angelo Giuseppe Roncalli)로 1881년 11월 25일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에서 12km가량 떨어진 소토 일 몬테에 있는 가난한 농가에서 13명 중 셋째로 태어났다. 요한 23세가 특별히 자신의 사제상을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은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 77세 고령에 교황으로 선출

그는 베르가모의 신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

은 후 로마로 유학을 떠나 신학 공부를 하던 중 1902년 10월 영성 지도자인 구속주의의 피토키 신부를 만나면서 “하느님은 모든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명제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1904년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동시에 사제로 서품된 그는 이듬해 베르가모의 데데스키 주교의 비서로 임명되어 1914년 주교가 사망할 때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1915년 5월부터 1918년까지는 군복무를 하게 된다. 1921년에는 베네딕도 15세 교황에 의해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의 이탈리아 책임자로 임명된다. 이후 교황청 외교관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25년 아레오 폴리스 명의 주교품을 받고 불가리아 감목 대리로 파견됐다. 1935년 대주교가 된 뒤 1944년까지 그리스와 터키 주재 교황사절로서 활동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로 활동하면서 1952년부터는 교황청의 유네스코 파견 상임 참관인으로도 활동했다. 1953년에는 추기경으로 서임돼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됐다. 1958년 교황 비오 12세가 세상을 떠난 뒤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교황 선거에서 77세의 론칼리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됐다.

고령인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추기경들이 일견 과도기적인 성격의 인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한 23세는 결코 자신의 직무를 과도기적인 성격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과거의 어떤 교황보다도 더 급격하게, 전진적으로 교회와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탈한 성품의 요한 23세는 교황직을 현대 세계로 개방하고 공장 과 양로원, 감옥을 찾아다니며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추기경단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장차 비 이탈리아계 교황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요한 23세 교황의 업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최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비록 첫 번째 회기를 마치고 1963년 6월에 선종했지만 이로써 그는 교회의 쇄신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세속과의 화해를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



#### 성령의 영감에 따라

1962년 10월 11일, 전 세계 2500여 명의 주교들이 성 베드로 광장을 가로질러 대성전으로 입장하던, 공의회의 개막을 알리는 이 장엄한 행렬은 전 세계에 라디오와 TV로 생생하게 중계됐다. 그것은 현대 교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요한 23세 교황은 개막 연설에서 이 공의회가 예전의 공의회들과는 달리 교회의 주요 교리를 다시 확인하거나 오류와 이단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비의 약으로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현대 세계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공의회 개최를 알린 것은 1959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의 마지막 날인 1월 25일이었다. 더욱이 그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영감이었다.

요한 23세의 이 시대를 넘어서는 담대한 결정은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라는 표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현 시대에 대한 외적인 “적응”을 넘어서 완전한 의식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후임 교황들에 의해 마무리된 이 공의회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형성했고 오늘날 교회는 그 정신에 따라서 스스로를 중단 없이 쇄신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 공지 사항

### 1 미사 안내

한정현 주교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10/16(목) 오후 7:00, 10/17(금) 오전 10:00 미사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10/18(토)-10/19(주일)에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World Mission Sunday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교회로서 세례를 받고 파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3 구역의 날 & 음식 봉사

- 일시: 10/12(주일) 교중미사 후
  - 음식 봉사: Mukilteo구역
  - 메뉴: 배추된장국+어묵볶음
-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4 구역장 회의

- 일시: 10/19(주일) 오전 11:30
  - 장소: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 기도 50만 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7/1/2025 ~ 8/31/2026
- 대상: 전신자

###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5 재정 관련 오리엔테이션

- 일시: 10/12(주일) 오후 1:00
  - 장소: 101호 교리실
- 재정위원회에서 최근 시애틀 교구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 공유와 교구 방침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 관리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분과장, 단체장, 회계 담당자(필수)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Safe Environment Manager 모집

본당 Safe Environment를 관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시사 영어 특별 강의 안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인 신자분들을 위한 강의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최신 시사와 건강 관련 뉴스를 주제로 쉽고 친절하게 영어를 지도해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11 am - 12 pm
- 강사: 송인성 베드로(PhD)

### 8 베드로회 회원 모집

베드로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70세 이상의 남성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양대석 엘리야 206-334-7050



###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열왕 하 5,14-17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2독서** ..... 2 티모 2,8-13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7,11-19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성가 안내

입당 성가: 441

예물 준비 성가: 215, 511

성체 성가: 175, 176

파견 성가: 250

| 연중27주일-한가위(10/5) | 토요 저녁(7:00) | 주일 아침(8:00) | 교중(10:00) | 청소년(11:30) | 청년(5:30) | 미사 참례자 합계 |
|------------------|-------------|-------------|-----------|------------|----------|-----------|
| 미사 참례자           | 43명         | -           | 391명      | -          | 40명      | 474명      |

## 교우 비즈니스 광고

|                                                                   |                                                                                 |                                                                              |                                                                            |
|-------------------------------------------------------------------|---------------------------------------------------------------------------------|------------------------------------------------------------------------------|----------------------------------------------------------------------------|
|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 <b>CPA, Cho &amp; Assoc. LLC</b>                                                | <b>박영진 부동산</b>                                                               | <b>엠마 스킨 케어</b>                                                            |
| 변호사 -Jeremiah Styles<br>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br>206-335-3090          |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br>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br>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 고객 평가 1위<br>Windermere Real Estate<br>206-833-7979                           |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br>G마트 2층(린우드)<br>425-525-9955                      |
|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br/>(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 <b>Pearlshining Photo</b>                                                    | <b>퀀티트 용자/부동산</b>                                                          |
|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br>임정욱 마르세리노<br>206-669-4922                         | 홀리루드 / 겟세마니<br>박요안나 206-434-5670                                                |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br>반태성(바오로) 206-883-3080<br>Lynnwood H-Mart 내         | 퀀티트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br>대표 토니 장 (안젤로)<br>206-719-3502                        |
| <b>KCR MEDIA GROUP</b>                                            |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 <b>IRA/401(K)</b>                                                            | <b>김현숙 부동산</b>                                                             |
| 교차로 / 블루북<br>www.wowseattle.com<br>대표번호 425-712-1236              |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br>KBS/MBC/SBS/케이블 방송 등<br>425-777-6667                           | U & T Financial<br>김용근(Glen) 바실리오<br>206-880-1190                            | Windermere Real Estate<br>주택/콘도전문<br>206-375-5959                          |
| <b>황바로 바오로 CPA</b>                                                |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
|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br>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br>info@phcpallc.com | 비만/호르몬 치료<br>비타민 주사<br>206-485-3112(최주연 리나)                                     |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br>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br>425-791-0638/253-778-3974                | 주택 전문 /John L.Scott<br>425-770-1212                                        |
| <b>동서 한의원</b>                                                     | <b>New York Life</b>                                                            | <b>State Farm(첼시 항보 보험)</b>                                                  | <b>블루밍 치과</b>                                                              |
| 425-773-7979                                                      |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br>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합케어<br>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br>22618 Hwy 99 ste. #113 Edmonds<br>425-329-8396 (부한마켓 옆) | 임플란트, 교정, 보철<br>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br>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
| <b>아들라스 척추 의료원</b><br>14608 Hwy 99 #309 Lynnwood                  |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br/>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
|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br>김진영 요안나<br>425-742-0332                         |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br>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br>19505 44 th Ave. W. Lynnwood     |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br>425-233-8254<br>(Bellevue)                                  |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br>206-362-2500<br>16535 5th Ave. NE Shoreline           |
| <b>정가네 반찬</b>                                                     |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
| 반찬, 케더링 전문<br>206-906-9789<br>206-372-6481                        | 세금보고, 회계업무<br>425-373-0380 / 425-802-7999<br>SabrinaHwang@CPA.com               | 김병성(프란치스코)<br>425-775-7550<br>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br>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br>213-926-7030(Issaquah)                |
| <b>희망미디어(Hope Media)</b>                                          |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 <b>핸디맨</b>                                                                   |                                                                            |
|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br>집 253-256-1854<br>Kwom.guhun@gmail.com   | 노인 정신과<br>206-657-4829<br>www.newhaven.care                                     |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br>206-498-8164<br>임화식 레오                         |                                                                            |
| <b>웅진 코웨이 USA</b>                                                 | <b>뉴 해남 식당</b>                                                                  | <b>Banji<br/>(Korean Speed Dating)</b>                                       | <b>시애틀 폴락<br/>(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
|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br>253-632-0498<br>토마스 조                    | 11:00 AM~9:30 PM<br>매주 목요일 휴무<br>206-367-7843                                   | 425-999-1874<br>김현숙 헬레나<br>banjiseattle@gmail.com                            | 425-534-9255<br>www.seattlepollock.com<br>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

##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       |                                                                         |
|-------|-------------------------------------------------------------------------|
| 주일 미사 |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
| 평일 미사 |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
| 성사 안내 | 봉성체 : 목요일 (10/30/25) 유야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8/25)                        |

# 2025년 제58회 군인 주일 담화

오늘은 58번째로 맞이하는 군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장병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전후방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사목하시는 군종사제들과 협력자 수녀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종교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군종후원회 회원을 비롯한 모든 신자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1968년도 주교회의에서 군인 주일을 제정할 당시, 군종신부단의 총재셨던故 지학순 주교님께서 ‘군 사목의 중대성을 자각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가톨릭 시보’에 기고하셨습니다. “군종신부로 군대에 가봤자 일만 고되고 딱딱한 규율 속에 사니 재미도 없고, 수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또한 교회 당국의 후원 면에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니 고달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군종신부 한 사람이 잘만 활동하게 된다면 많은 병사에게 신앙적·인격적으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군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신자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0년대 초에 시작한 ‘전군 신자화 운동’은 창군 이래 최초의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장병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 하나씩을 선택하여 신앙을 통해 군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여, 1970년부터 1973년까지 6,500여 명의 세례자를 배출하였고 이 시기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자들은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의 큰 재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를 기억하며 군종사제들은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3,6)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도 장병들의 영적 선익과 꾸준한 신앙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교회는 야전병원’ (프란치스코 교황)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전병원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들을 돌보듯이,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치유하고 위로하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뜻입니다.

군종교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군종사제들은 101명이며, 전후방 각 부대는 물론 레바논(동명)과 남수단(한빛),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청해) 등 해외 파병지에서도 사목합니다.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들의 정신적·영적 고단함을 덜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젊은 병사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군종사제들은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병사들의 ‘영적 의사’로서, ‘야전병원’인 교회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 환대와 공감으로 함께하는 군종사제의 삶

여러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무종교인과 종교인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추정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군종교구 세례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세례자 수는 1만 4천여 명이었으나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은 작년에는 8천8백여 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선교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종사제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사목을 모색합니다. 어떤 때는 사제로, 어떤 때는 삼촌으로, 어떤 때는 형이나 오빠로 장병들 곁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젊은 감각으로 다가가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주일에 성당에 오는 이들을 따듯이 환대하고 평일에는 장병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격려합니다. 환대와 공감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신”(루카 4,40)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 끝까지 퍼뜨려라.” (이사 48,20)

군종교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꽃동네에서 ‘제1회 군종교구 청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500여 명의 청년들이 깊은 감동과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역 후,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꼭 참가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종교구는 특히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참가할 수 있도록 청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 뜨겁게 체험한 신앙이 전역 이후에도 이어져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교우와 비신자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선교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은 바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들이 군 생활을 보람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군종사제들은 늘 동행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을 신심 깊은 하느님 자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군종사제들은 이러한 기도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장병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군인 주일에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